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6호 [루계 제25960호] 주제 107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여명객수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고결한 량심을 바치였으며 우리 당의 송고한 인민판을 실장길이 새겨안고 운수봉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의 충북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가고 있다.

만수대창작사 유화창작단에서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미술작품을 훌륭하게 창작완성함으로써 주체미술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고산파수총합농장을 대규모파일생산기지로 더욱 훌륭히 전면시킬 때 대한 당의 뜻을 발휘하고 창평산호랑로동자 한운미는 가정에서 마련한 물자들을 어려차례 지원하여 618건설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

로 고무하였다.

돌격대에 탄원하여 값높은 삶의 자족을 세겨가고 있는 순안구역편의 봉사사업소 부원 심옥경, 담배연합기업소 평양담배공장 료동자 린금애는 지원사업에도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평성의 학대학 연구사 리순철, 평안남도 위생방역소 의사 류경미도 고산평을 로동

당시에 사회주의 풍물도원으로 더욱 훌륭히 템포시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드거운 협속의 정을 기울였다.

도시경영성 산하단위 소장 송영심,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의사 신옥은 건설에 필요한 기공구들과 후방물자들을 보내주어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우기 위한 대자연개조투쟁에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는 심정으로 대외건설지도국 문서원 김원일, 순천시 직동 138인민반 정순

제도 618건설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만들어갈 일념밑에 국가과학원 실장 오철민은 누가 알아주건 말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면서 쇠그물을 타리공장의 현대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수도건설설계연구소 설계원 리영범, 봉화학공장 로동자 장기철, 안변가구공장 료동자 엄룡록은 인민준비를 둘는 일을 적극 찾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영광속에 받아온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보시며 김정일에 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태양절 경축 준비 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 경축 준비 위원회가 15일 베가리아의 코피아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베가리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민초민체브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세계자주화위업 실현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노론회, 경축모임, 영광강사회, 사전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증광통신]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이 평양에서 진행된다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이 진행된다.

우리 인민과 세계 전보적인 인류의 열화 같은 위인 창송의 마음에 떠받들려 낸내와 세기를 이어오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은 나라

사이의 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국제적인 대회로 숙제이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진 일흔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진

위원회가 18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현대성위 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파

태양절 경축 방글라데슈준비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은

예술단들과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참가한다.

축전참가자들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을 암금성의껏 준비한 성악, 기악, 무용, 교예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로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하게 된다.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은 회사의 천출위인들을 세차례 세밀히 밟아보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성장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흠의 정이 숭엄한 예술적 화폭으로 절치지게 된다.

축전에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국제 국내 콩쿨 수상자들, 관록있는 명예우를로 구성된 예술단, 무용단, 교예단 그리고 해외동포

장을 아로새기게 될것이다.

모두다 열렬한 애국의 열정안고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봄 철 나무심기 전투 활발히 전개

발전설비정비보강에 큰 힘을

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나무심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총화와 평가사업을 따라세워 나무심기 실적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시안의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장조직들은에서는 종업원들속에 산림부구전투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에게의 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이라는 뜻을 깊이 새겨주면서 부식준비를 실속있게 하고 적저수익의 원칙으로 나무심기로 힘들고 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더욱 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봄철나무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은 세워온 봄철나무심기로 나무모자를 뒤집어쓰고 있다.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은 세워온 봄철나무심기로 나무모자를 뒤집어쓰고 있다.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은 세워온 봄철나무심기로 나무모자를 뒤집어쓰고 있다.

시안의 일군들은 나무모자를 심도록 함으로써 사력을 풀어놓고 있다.

이미 여러 호기의 태반날개를 펼치고 있다.

열생산직장들의 일군들과 기관들은 실력을 높인 성과를 더욱

내당 출력을 높인 성과를 더욱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자

이들처럼 새 기술도입의 앞재를 빼고나갈 때

최근 수도권 객운수국 브스수리공장에서 주조공정에 새 기술을 받아들이 경제적 실리를 얻고 있다.

로령철강, 에너트기절 암형으로 학교에 향해 뛴 이 공정에서는 거품수지 모형을 이용하여 복잡한 형태의 어려가지 주물, 주강풀들을 정밀하게 주조할 수 있다. 종전의 주조공정과 달리 목형과 점토를 쓰지 않으면서도 생산원가는 3% 이상 낮출 수 있다. 반면에 제품의 질과 실수율은 훨씬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성과는 새 기술도입사업을 공장의 건설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피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장인 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색과 뛰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험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관률을 끊임없이 새 주조공정 확립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확고한 신심을 가지자.》

공장에서 새로운 주조기술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다.

몇 해 전 어느날 중요대상건설장에 보내준 대형발브제작에 펴 용되는 주물소재의 질이 높지

수도권 객운수국 브스수리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못하여 생산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났다. 표면이 거칠고 기포가 생긴 주물품을 바라보는 지배인의 마음은 무거웠다.

결정적으로 주조공정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그는 해결방법을 찾아나갔다. 첫 단계를 놓고보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설계원들의 선발기준이다. 전공주조설비들의 대 한 파악이 부족한 조건에서 일군들은 지난 시기 이와 유사한 대상설비들의 설계에 참가하였던 김승문, 김경호 등 무를 비롯한 기술인들을 새 주조공정 설계에 망라시키겠다.

또한 그들을 이 분야에서 앞섰다고 하는 대상들에 보내여 새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해당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협력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는 공장자체의 기술력량에 절저히 의거한다면 얼마든지 새 기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당 조직의 지도밑에 박향통지 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통이 큰 작전을 펼치었다.

그러면 공장설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새 기술도입사업에서 이곳 일군들이 잘한 것은 자체의 기술력량과 생산조건에 대한 과학적인

타선에 기초하여 새 기술도입의 단계와 목표를 바로 정한 것이다. 즉 기술력량을 적중하여 편성하고 설계단계, 시험도입단계, 공업화실현단계로 나눈 것이다.

첫 단계를 놓고보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설계원들의 선발기준이다. 전공주조설비들의 대 한 파악이 부족한 조건에서 일군들은 지난 시기 이와 유사한 대상설비들의 설계에 참가하였다.

당시 이 주조기술을 도입한 단위도 얼마 없었고 참고할만한 기술자료도 부족했다. 더욱 난 문제는 이 기술을 도입하는데 적지 않은 투자가 요구된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배인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새 기술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고 자세와 설비 등에로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는 공장자체의 기술력량에 절저히 의거한다면 얼마든지 새 기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당 조직의 지도밑에 박향통지 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해당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협력으로 새 기술도입전투에 일군들을 대상으로 투입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해당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주조공정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내화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자진하여 펼쳐들었다.

이들은 막아서는 설계와 난관을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극복하며 도로생산을 위한 성분들의 협력적인 배합비를 찾아냈다. 정이철, 김광익 등 무를 비롯한

하여 설비와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도록 요구장을 높이였다. 이들이 새 기술도입사업에서 경험이 풍부한 4. 15기술 면을 가진 주물품들을 순회제로 부여낼 수 있게 하였다. 결과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극성에 떠밀려서 새 진공주조기술이 도입되었다.

새 기술의 도입성과는 생산에 온을 내기 시작하였다. 지난 시기 주물품들에게 나타난 기포를 비롯한 결함들이 없어져 제품 수율은 최고 95%에 이르렀다. 생산속도는 거의 5배나 높아져 공장에서는 전공주조법으로 만든 성능높은 대상설비들을 중요대상건설장에 원만히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

강창수, 랭세철, 전진남동무를 비롯한 4. 15기술혁신돌격대 성원들과 설비제작사업에 동원된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날과 밤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며 뛰어난 기술도입전투의 앞장에서 헌신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해당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주조공정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내화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자진하여 펼쳐들었다.

이들은 막아서는 설계와 난관을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극복하며 도로생산을 위한 성분들의 협력적인 배합비를 찾아냈다. 정이철, 김광익 등 무를 비롯한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순천철도분국에 서

전투좌지를 들리는 작업현장으로 끌려온 분국의 당, 행정 책임 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알아보며 결린 고리를 풀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어느날,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중요하게 토론된 것은 철길보수에 용수고리를 만들자면 수십의 강체가 요구되었는데 우단 바라보아서는 해결될수 없었다.

일군들은 강제 분제도로 동자들의 정신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갔다. 한강조간은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들은 비상장과 철길강단을 대상으로 철길강단을 높이기 위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란 철길보수에 풀어나갔다. 그것은 오늘날 일군들이 말휘해야 할 당정책 결사판정의 정신은 일군들의 협상력과 실천력을 동시에 보장할수 있는 것

으로 하여 회의 참가자들의 반영도 좋았다.

하지만 그 실천경에는 풀어나갔던 철길보수도 적지 않았다. 제일 결린 문제는 고정쇠를 부어 넣으 있는 풀에 있는 것이다.

당시 조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렇다고 설비타발, 조건타발만 앞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생산공정들을 보다 안전하고 고작품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활짝펴고 있다.

이곳 철도분국의 성과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우리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구체적 조건에 맞는 방법론을 풀어 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지금 이들은 생산공정들을 보다 안전하고 고작품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활짝펴고 있다.

이곳 철도분국의 성과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우리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구체적 조건에 맞는 방법론을 풀어 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당 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일군들은 대중의 양양된 대중의 열의 속에 생산되는 혁명정신이 확대되었다. 이들은 조건이 어렵다고 주지않은것이 아니라 자체로 결린 문제를 풀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조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렇다고 설비타발, 조건타발만 앞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생산공정들을 보다 안전하고 고작품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활짝펴고 있다.

이곳 철도분국의 사업경험은 예로와 난관앞에서 주지않을것이 아니라 강력제재집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단한 작전과 지휘로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생산적 양양의 불길을 더 높여 세우고 조건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지금 이들은 대단히 화물자동차를 대용으로 펼쳐지는 철길강단을 높여 세우면서 물려설수도 없었다.

전국가적·전사회적으로 교육지원을 더욱 세차게

새 교사에 비친 혁신의 모습

수도건설위원회와 아래 단위 일군들과 파업 위원회들

며칠 전 우리는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내 학생 중구건설 대학교사가 홀통하게 일어섰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

듣던 바 그대로 7층짜리 새 교사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멋 정도였다. 대학을 이렇게 풍히 일며 세우기 위하여 아끌 타고 노력하며 현신적으로 투정해온 수도건설위원회와 아래 단위 일군들과 팀원들을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속에 깊은 어운을 남겼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이 물질기술적 대체 세제적 수준에 물려드세요! 합니다.』

우리와 민간 대학 책임일군은 한승혁동무의 이야기는 두 해전 1월 어느 날에 있던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평천부재공장의 초급 당일군은 구조설설에 대한 사업으로 짐이 불타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당과 조직에 충실했을까 있던 맹인가. 생각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자책도 커졌다. 그날 일군들은 대학 교사건설에 깔끔한 향심을 바쳐 같은 문을 결의를

을 다졌다.

기능이 높은 건설자들로 교

사건설령이 편성되고 자체 확보사업이 따라왔다.

그제 3월부터 교사건설이

벌어졌다. 공장 일군들은 늘

작업 부자립으로 건설장에 나와

구슬땀을 흘려면서 대중을

힘 있게 이끌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건설장에

기발들이 휘날리게 하고 있

후대들을 위해 무엇을 아끼라

합흥시 성천강구역 일군들과 근로자들

3월 학교기획월간을 맞으며 합흥시 성천강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학교지원사업에 한 사람같이 뛰어나왔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보장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던 그는 그날 그는 그날 일군들을 위한 경기에서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학교와 대

학들의 면모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해야 합니

다.』

지난 2월말 구역에서는 이 번 학교지원월간에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교육지원사업에 힘써온 학교교사들이 학교교사에 대한 국가적 보

장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던 그는 그날 그는 그날 일군들을 위한 경기에서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담았고 후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는 나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학년도에

기여한 학교교사들이 대중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만민이 칭송하는 불세출의 위인

지금 세계의 이목은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통봉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고수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주체조선으로 쏠리고 있다.

여러 나라와 출판보도물들에 외국의 벗들은 우리 나라에서 이룩되고 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전하면서 그 비결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특출한 명도풍과 실력을 찾고 있다.

인디아신문 『오우선 뉴스 포 인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진 문헌을 보시고 『리상적인 국가지도자』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김정은 최고령도자에게 시야말로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추신 현시대의 가장 려상적인 국가지도자이시다라고 칭송하면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김정은 최고령도자는 숭고한 인덕과 인민관을 지닌 신애민정의 정체가 아시다.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진정한 애민정치를 펼치시는 그이의 손길아래 조선의 새 세대들은 나라의 기동감으로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다.

조선방문의 나날 밝고 맑았던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 나라의 창창한 미래를 보았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 중

제사로 내세우는 조선의 정책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귀감으로 된다.

미래사랑의 위대한 품에 안겨 사는 조선의 어린이들은 행복동이들이이다.

이뿐이 아니다.

풀비니 아동산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김정은 각하는 세련된 평도

그이의 위대한 품이 있어 조선에서는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 인민의 꿈과 히성이 끊어나는 사회주의선경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이께서는 예리한 통찰력과 해박한 지식으로 생산성과 혁대화의 묘법을 밝혀주신다.

그이의 명도아래 조선에서는 공업발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인민생활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세계언론들이 최근간 조선은 김정은 각하의 지도를 받으며 물려보게 변모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였다고 평가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 아니었다.

로씨야의 데메-로쓰통신은 과학기술증진을 국가의 덕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언론들이 조선의 최고령도자를 『따뜻한 인민정부』로 칭송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 아니었다.

김정은 각하의 평도밀에 더욱 부강한 모습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할 조선의 앞날이 기대된다.

민주평고주체사상연구 전국 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폐의 강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전집하였다.

조선이 불폐의 강국이라는 목소리는 전보적인 민들뿐 아니라 세방나라들에게도 유통된다.

김정은 각하는 세련된 평도

와 비상한 전개력, 완강한 투지를 지니신 철천가형의 지도자이다.

그이께서는 예리한 통찰력과 해박한 지식으로 생산성과 혁대화의 묘법을 밝혀주신다.

그이의 명도아래 조선에서는 공업발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인민생활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세계언론들이 최근간 조선은 김정은 각하의 지도를 받으며 물려보게 변모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였다고 평가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 아니었다.

로씨야의 데메-로쓰통신은 과학기술증진을 국가의 덕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언론들이 조선의 최고령도자를 『따뜻한 인민정부』로 칭송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 아니었다.

김정은 각하의 평도밀에 더욱 부강한 모습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할 조선의 앞날이 기대된다.

민주평고주체사상연구 전국 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폐의 강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전집하였다.

조선이 불폐의 강국이라는 목소리는 전보적인 민들뿐 아니라 세방나라들에게도 유통된다.

김정은 각하는 세련된 평도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외국의 벗들 열렬히 칭송, 인터넷에 글 게재

리만이 있을 것이다.

* *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1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베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정치가는 김정은은 원자력과 풍력을 지녀야 인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가로 될 수 있고 성공적인 정치를 펴나갈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께서는 대단히 매력적이며 인기 있는 정치가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계신다.

김정은 최고령도자는 매우 강한 지도자이다. 그이께서 최근 몇년 간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보여주신 자세와 결단은 그의 강한 기질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김정은 최고령도자는 강하신 것 만큼 매우 부드러운 분이다.

인민들을 대하시는 그의 모습은 청결하고 소탈하다.

인민들의 인사도 허리굽기 밟아주시고 언제나 미소를 지으시며 그들과 귀족 말도 하시면서 허리를 없이 이야기도 나누신다.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매력은 빛나고 있다. 그이께서는 판단이 정확하시며 일관성이 뛰어난 정직과 헌신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뒷모습은 청결하고 소탈하다.

인민들은 반드시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액 두산체스교선전선협회 제1부위원장 요제프 베리비스

라는 자주정치, 인민사랑의 정체를 펼치시는 김정은은 통지는 절세의 위인, 현시대의 가장 려운 영도자로 평가된다.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어디에서나 살피고 높이 높이 것이다.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주의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멀지 못하는 불폐의 강국으로要用을.

김정은 각하를 모셔서 사회